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Yung Y. Shin Editor

Vol 7 No. 7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Aug. / Sept. 1978



대한민국 해군 합정 SEA FAIR

참석 예정

대한민국 해군 합정의 씨 웨어(SEA FAIR) 방문 일정 및 안내를 지난호 씨 웨어와 심원주안인회 본지 지상에 알리드린 바와 같이 이월이 있을 예정을 자세히 알리 드렸으나 오니 고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일정표

8월 4일(금요일)

오전 9시 부터 환영식이 거행되겠습니다. 만 기함 총복호는 씨 웨어 항구 부두번호 56 N. 경남호는 씨 웨어 항구 부두번호 69 N. 에서 각각 거행하게 되는데 많은 고포 가족 여러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과 부두는 약도를 참조하시어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4일(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군 합정 총복호와 경남호의 오픈 하우스(OPEN HOUSE)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해군의 각종 신예 무기와 해군 장사병의 합상 생활을 낱낱이 관람하실수 있으오니 많이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8월 4일(금요일)

오후 8시 30분 부터 10시 30분 까지 토치 라이트 행진(TORCH LIGHT PARADE)

이 있을 예정 이오나 행진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두대의 오픈 하우스 한복을 예쁘게 정장한 한국 아가씨와 씨 웨어 한인회 회장과 박로마 한인회 회장, 씨 웨어 주재 총영사, 해군 합정 대표자를 태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앞장을 서서 행진하며 그 뒤에는 해군 밴드(31 명과)를 이어서 해군 의장대의 표기와(26명) 해군 사관 생도(147명)가 행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포 여러분께서는 씨 웨어 다운타운의 4가(4TH AVENUE)에서 유니온가와 파이크가(UNION & PIKE ST.) 사이에 오후 5시 30분 내지 6시 30분 사이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주차장은 프리웨이(FREE WAY) 위에 세네카(SENECA)와 8가(8TH AVENUE)에 있고 또 해변가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약 2시간 전에 미리 오셔야 혼잡을 피하고 자리를 잡으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참조하시고 장소는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월 5일(토요일)

오전 10시 부터 12시 까지 해군 합정 경남호의 오픈 하우스(OPEN HOUSE)가 있오니 고포 여러분의 합정 관람을 초대 합니다.

8월 5일(토요일)

오후 2시 부터 3시 30분 까지 의장대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통 모기 씨 웨어와 해군 밴드 연주가 있을 예정이고 동시에 1시 30분 부터 4시 30분 사이에 해군 합정 총복호의 오픈 하우스(OPEN HOUSE)가 있을 예정이오니 고포 여러분의 관람을 환영합니다.

8월 6일(일요일)

오전 11시 부터 오후 3시 까지 웨스트 씨 웨어(WEST SEATTLE)에 있는 링컨 공원(LINCOLN PARK)에서 이번 에 참석한 해군 장사병과 고포 여러분의 공동 아우회가 있을 예정인데 이 아우회에는 해군 450명과 고포 수백명이 함께 점심을 나누고 노래자랑과 다른 오락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해군 장사병 환영위원회에서는 불고기 와 음료수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포 여러분께서는 가족당 5인분 이상의 식사 준비를 하여서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포를 떠나온 우리 해군 장사병과의 뜻있고 마음 훈훈한 아우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우회 장소는 약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한민국 해군 합정 환영 위원회"의 각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다 순임)

본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씨 웨어 한인회 회장과 박로마 한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위원 명단(가나다 순서임)

김길량	김상택	김성길
김연조	김일영	김재현
김재호	김창성	김철준
김형진	김홍식	김해성
구범희	곽종세	박남표
남홍우	박송자	박삼봉
박암	해티박	서두수
신석한	신호범	심인수
안병영	안성진	오준걸
이동립	박재인	이만득
이명규	이선복	이순우
이창희	이현기	이형상
이.암스트롱	유해수	윤학덕
전계상	조영	최용걸
한만섭	황수철	

이상

위의 위원 여러분 중에서 책임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섭외부에 김재호 선생, 재정부에 신호범 선생, 고포 동원에 최용걸 박사, 아우회 준비에 오준걸 이사장, 행진에 이형상 총무가 각각 수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답 화 문

고포 여러분 !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8월 4일 (금요일) 부터 8월 7일 (일요일) 까지 4일간 씨애틀, 파코마를 중심으로한 워싱턴 주에서는 한인 이민 사상 처음으로 미국인들에게 한국 민족의 업과 우호적인 행사를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한국 해군 및 사관생도 약 600여명의 이 지역 방문의 역사적 의의는 참으로 지대한 것 입니다.

첫째 해마다 맞이하는 SEA FAIR 행사엔 일본, 중국, 필리핀등과 같은 동양계 민족들의 활기찬 행사 참여에 위축되었던 한국 및 한인계 고포들에게 자랑스럽고 씩씩한 대한민국 해군 사관생도들의 시가 행진은 용기와 영광스런 조국애의 긍지를 불어 일으켜 줌으로써 자타나는 2세들에게 조국을 심어줄수 있으며, 둘째, 지금까지 미 동포를 위한 한국 정부 및 단체의 방문이 나성, 상항, 하와이, 뉴욕, 시카고등 고포 인구가 많은 곳으로 참여 감에 워싱턴주를 워시한 서북부에 거주하는 1만5천이 넘는 대부분의 고포들, 특히 고포 실업인들은 소외된 지역으로 여겨 왔는데 이번 상대한 행사를 계기로 이 지역 고포 사회에 획기적인 발전 봄을 일으킬 것이며, 셋째로, 조국

대한민국의 급진적인 경제성장과 부강한 국력을 과시함으로써 이 지역 한인사회의 세력 확장에 도움되고 타민족 및 미국인, 미국정부에 믿음직한 우방을 갖고 있음을 자랑으로 압게 합니다.

이와같은 뜻 깊은 계기를 마련할수 있도록 한 씨애틀 한국 총영사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중요한 행사 일정

8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 씨애틀 항구 입항 (고포환영바람)
 오후 8시: 해군함정 2척 (해군 600명 승선)
 오후 8시: 씨애틀 다운타운 씨애틀어퍼메이드 한국 해군 밴드, 의광대, 사관생도 고포의 참석

8월 6일 (일요일)

오전 11시: 링컨공원 해군함정 입항 환영 야유회 및 8.15 기념행사.

위와 같은 행사를 맞이하여 한인회에서는 막대한 자금의 부족을 통감하여 대한민국 해군함정 환영 위원회를 결성하여 고포 여러분의 과별하신 모금협조로 어려운 재정여황에도 불구하고 하오니 관대하신 아량으로 적극 후원 있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여러분의 성금은 입금이 지상에 발표함과 동시에 인컴택스 (INCOME TAX) 의 해

택을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어오니 보내실 때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길 바라고며 이 기회에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워싱턴주 고포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면서 의탁된 부탁 말씀 줄일까 합니다.

1978년 7월 15일
 대한민국 해군함정 환영위원회 재정담당
 모금위원장 신 호 범 (필.신)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 WASH. 98124
 TEL.: 624-7604, 624-7607.

씨애틀·뱅크버 친선 야유회성황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와 뱅쿠버 한인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던 이번 야유회에서 갖은 축구 경기는 이번해에는 뱅쿠버 팀의 승리로 돌아갔고 여자계임으로 벌인 탁구볼은 씨애틀 여자팀이 우승을 하여 금년도 씨애틀 대 뱅쿠버의 친선 야유회의 체육대회는 공동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야유회는 우드랜드 공원에서 열렸는데 약 350여명의 많은 고포 여러분과 한인회 회장, 부회장, 과 이사 및 임원과 씨애틀 총영사관의 남 홍우 영사, 부영사 그리고 직원 여러분등 관계의 유지들이 모두 참석하신

가운데 성대히 베풀어 졌습니다.

환영사부임영

씨애틀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총영사로 장운걸 선생님이 발령되어서 이곳 씨애틀에 도착하셨습니다.

장운걸 총영사님은 서울 문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1949년에 외무부 주일대사관, 주독대사관의 1등 서기관을 역임하신뒤 외무부의 문화과장과 의정국장을 거치시고 1961년도에 공직생활을 마치고 영남대학의 이사로 지금까지 계시다가 본 씨애틀 주재 총영사로 발령을 받아 부인 "허원" 여사와 함께 이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한인회는 총영사님께 축하를 드리며 또한 이곳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봉사센터 이전공고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와 한인 봉사센터가 하기 주소로 이전을 하게 되었음을 고포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8월 1일부터 이전된 주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한인회 사무실과 한인 봉사센터는 건물 2층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925 SO. KING ST.
 SO. KING ST. AND 10TH AVENUE S.
 SEATTLE, WA. 98104.
 TEL. NO. 는 같습니다.
 고포 여러분의 많은 신 이용을 바랍니다.

씨애틀 한인학교 상황

지난 5월 6일에 개교한 한인학교는 자녀 교육에 열성이 있는 부모님들의 협조에 의해 날로 번창 일로에 있습니다. 오준걸 한인회 이사장, 이창희 선생, 서두수 박사, 박암 민족 예술원 원장, 이선진 부영사의 축사 및 격려사가 있었던 개교식 당일 42명 이었던 학생이 지금 현재는 80명 등록, 매일 50 여명씩 출석하여 한국의 새 일꾼이 될것을 다짐하며 열심히 배우고 있다. 그런데 학교 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인학교 학교일정

학년 시간	병아티 (유치원, 1)	나비 (2 3)	비둘기 (4,5,6)
1 9:30 10:10	국 어	국 사 예 능	배 권 도
2 10:10 10:50	배 권 도	국 어	국 사 예 능
	간식 및 유식		
3 11:10 11:50	국 사 예 능	배 권 도	국 어

특히 본교에서는 국어(우리말)에 중점을두고 지도하기 위하여 국어과 시간에는 A반(국어 및 영어 혼용 지도)과 B반(순 국어만의 지도)으로 나뉘어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지도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간식 시간에는 매일 10여명의 모자님들께서 순번제로 마련한 과자와 음료로 배움에 고단한 아들의 피로를 덜어주고 있다.

한편 부형들께의 요망 사항을 보면 학생 입학 원서의 조속한 제출과 등록금(1인당 20불 2인 이상은 30불)의 납부 정리가입니다.

여러 교포께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인선교교회

담임 목사 : 송 천 호
전화 : 839-0172 922-1611

웨드넬 웨이 교회 집회 시간
장소 : 445S. 312St. FED. WAY
예배시간 10:00-11:00
수요 집회 7:30-9:00

박로마,레이크 우드 집회 시간
장소 : 6900 Steilacoom
주일예배 1:00-2:00
금요 집회 7:30-9:00

한인 선교 교회에서는 여름 동안에 예배 시간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모입니다.

소망찬 내일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인 교포들의 가슴마다 안기워 주고자 한인 선교 교회에서는 한인 교포의 문의 및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EATTLE

씨애틀 교포 제위 귀중

제 목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연구 요원 모집

정부는 금년 4. 7월 기하여 농산부 산하 관서이던 국립 농업 경제 연구소를 발전적으로 해체함과 동시에 대통령 각하가 직접 설립자가 되시어 아국 경제 개발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개발 연구원 (KDI) 과 국제 경제 연구원 (KIEI) 과 같은 형태의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기본 취지는 국민 경제의 고도 성장과 국제화에 따른 농업 여건의 변화와 전환기에 처한 농정의 기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경제 분석과 정책 연구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됨에 이를 위한 우수한 인재를 국내외에서 발굴, 확보하여 농정이 당면한 제 과제를 보다 능률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실효성있는 제 정책 대한을 마련코저 하는데 있습니다.

등 연구원의 연구진은 단계적으로 모집 예정인바, 귀지에서 책임자가 있으면 별첨을 참조하여 이력서 1통, 희망 분야 및 귀국 가능 시기 등을 명기하여 당관으로 직접 송부토록 조치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씨애틀 주재 총영사관으로 문의 하십시오.

1978. 7. 12

주 씨애틀 총영사관 배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EATTLE

안 내 서

경기도청에서는 78. 10월 중순 경기도 주치로 개최 예정인 제 59회 전국 체육대회에 즈음하여 경기도 출신 재외 동포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초청 예정이라고 하는 바, 귀지내에 경기도 출신 교포로서 동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시 현주소, 본적지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한국 내 연고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당관으로 통보 하도록 널리 알력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초청 조건

1. 일시 : 78. 10 중순 (1주일)
2. 장소 : 경기도 인천시
3. 항공료 및 체재비 : 자비 부담
4. 회망자에 대한 초청장 : 별도 송부

참고로 77년도 전국 체전시 (전남 개최)에는 전남 출신 교포로서 일본 지역 120명, 미국 50명, 서독 35명, 캐나다 1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8. 6. 22.

시애틀 총영사관

우리들의 보람 한인학교

교육은 국가 백년지 대계라고 하여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중요시 하지 않은 때가 없었으니 지금도 선진 국가 일수록 막대한 국가 예산을 이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환언하여, 교육은 입가 백년지 대계라고 한다면 과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 교육에 막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니, 지난 날의 소위 치마바람, 과외공부, 가정교사 등의 부조리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본인 자신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비탄을 견뎌왔다고 하여 부끄럽지 않으며 또한 대다수 교포들께서도 자녀들 교육을 위해 여기 와서 고생한다고 두터움 없이 말할 것으로 본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증즉 보존 본능을 으뜸의 본능으로 친다면 나의 후대는 보다 명확화과 부귀를 누리고 복된 생활을 영위할 것을 바라,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도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이겠는가? 우리는 저 유명한 맹모 삼천 지고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실로 우리 모두는 위대한 아버지의 길로 가고 있다고 자부해

도 좋은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한 우리 와싱턴주 교포들이 말할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고고의성을 뿔뜨린 한인 학교는 국가, 사회적으로 보아 정말 장한 일이고, 우리 개인의 가정의 입장에서 보아 정말 탁월한 일이기에서 기뻐 하지 않는 바이다. 이 자랑은 우리 워싱턴주 전 교포의 힘의 응거의 결과로 상징으로 발전을 기약하는 서광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이외의 의의를 간주하려 보면 첫째, 나의 조국이 한국이라고 뚜렷이 자부하는 우리들이요, 항상 머리 속에 그리움의 고국을 간직한 우리들이기에 나의 후손들께도 나와 같은 한국인의 인식을 심어 계속 시킬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동양어를 씀으로써, 배말민족으로서의 의의소용으로서 민족 의식을 심어준과 함께 단결심을 기려 상부상조하여 서로 잘사는 한국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고,

셋째,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두가지 언어를 사용할수 있어 그만큼 더한 지적 발달과 함께 모국어에 아는 파부심을 갖게 되는 점이요,

넷째, 근면, 성실과 예절 숭상의 민족 고유 의 전통을 계승하여 올바른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들 성인들의 융화 단결의 기회가 된다는 점이다.

이런 의의를 지닌 우리 한인 학교가 모든 것이 구비된 일반 정상외 학교와 같이 운영 되어진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일까? 우리 어른들을 안심하고 맡기며 한인학교만 믿고 무관해도 된다면 매우 좋으려만 사정이 어 의치 못하여 늘 관심을 기울여 하루 빨리 정상으로 키워줘야겠다.

흔히들 학교 구성의 삼요소를 시설, 학생, 교사로 본다면 우리 한인 학교는 부끄럽게도 절름발이 학교라 아니할 수 없다.

80명이란 많은 학생들이 등록되어 배우려고 새까만 눈망울들을 모으고 있으니 학생 외 한 요소는 조금도 손색없이 갖춰져 있으나 시설면과 교사면에서 문제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시설면에서 보아 학교 토씨의 법적 시설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도 있지만 학생과 교사가 마음 놓고 "나의 집이다"고 발을 펼수 없으니 안락까운 일이요, 교사면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사범교육을 받고 많게는 근 30년간 우수하다고 손꼽는 학교에서 교단 경력을 가진 분이나 우수 교육 공무원으로서 문교부 장관 표창을 수차 받고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 연구 기관에 오랫동안 근무한 교사나 국기인 배권도를 몸소 수련, 가르침에 열성이신 교사, 따뜻한 모성애로 정성껏 어린이를 보살피

주는 교사, 등등 교육 방법, 교육원리, 교육 철학 등 제면어야 모자람 없지만 오직 몸을 부쳐 아동 교육에만 전념 할수 없는 교사들이니 또한 유감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이미 우리들이 사전에 과오하고 시작한 것이요, 또한 과오하고 이겨나갈 것을 마음 속으로 약속한 우리들이 아닌가? 참고 견디며 하루 빨리 정상에 접근하도록 학교와 부형, 아니, 전 교포가 뭉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어려움을 먼저 이해하고 양해하는 미덕도 가져야겠다.

처음엔 다소 실망을 가질지 모르나 한술 밥에 배부르기를 바라서는 안될 것이다. 더우기 교육 사업이란 장구한 세월이 경과한 후에 결실을 거둘수 있는 것임을 재인식하고 너무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나의 손으로 나의 후손을 위한 학교를 만드는 기쁨으로 참여하고 키워야 한다. 또한 내 자손들에게 우리 한인학교를 자랑하고 선전하여 머리 속에 좋은 학교, 즐거움의 학교라는 인상을 심어 주도록 애써야 한다.

망난이 짓을 하는 아들을 둔 모 장관이 계획적으로 선생을 초청하고서는 대문간에 들어서선 선생님을 보자 맨발로 뛰어 내려가서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고서 "아 이구, 선생님, 저희 집에 까지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는 식으로 모셨더니 그 망난이 아들도 다시 생각하게 되어 착하고 훌륭

한 사람이 되었다는 입화가 있지 않을까? "모든 높으다는 사람들이 고개 속이는 자기 아버지인데 그 자기의 아버지께서 우리 선생님한테 고개 속였으니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높고 훌륭하신 분일까? 나도 우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고 뇌우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교육은 학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형 각자가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 각자 내 후손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인 학교를 키우고 그 결과로 얻은 나의 영광을 우리들의 희망인 귀여운 내 후손들께 돌려 주는 자랑스런 부모들이 되어야겠다. 글쓴이 : 이 형상

ACE GARDEN SERVICE 시작
1701-12th Ave. So Apt. 102 A 에 사시는 권 형규 (HYONG KYU KWON) 씨 는 교포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정원 단장 하는 일에 봉사하여 드리고저 정원 단장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정원 관리에 손이 필요하신 분이나 정원 관리에 문의 하고저 하시는 분께서는 다음 전화 번호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BUS. : 623 - 9290
RES. : 329 - 4708
교포 어르신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사랑의 집" 마련한 교포

레이크 시티(LAKE CITY)와 에 사시면서 어린 자녀들로 인해 직장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시는 교포들을 위해 "사랑의 집"을 마련하겠다는 한 교포가 있다. 4111N.E.115th에 사시는 Mrs. BAIK 씨는 3 - 6세 되는 어린이를 위하여 아침 6시30분 부터 저녁 6시까지 사랑으로 보살피며 드려진 3 - 4명에 한정하겠다고 한다. 해당 자녀를 갖으신 교포들께서는 문의 및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363-9099, 525-8334 입니다.

행사공고

8.15 경축 행사
1978년도 광복절 기념 행사를 씨애를 한인 장로 교회에서 8월 15일 오후 7시 30분 부터 한 인 회 의 주관하에 거행될 예정이오니 교포 어르신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조국의 광복을 다시한번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장로 교회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 2728N.E. 100 ST.



아세아인 복지사업회 (Demonstration Project for Asian Americans: DPAA) 에서는 금번 워싱턴주정부로부터 약 6만불의 재정지원을 받아 워싱턴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세아계 고포들의 취업상태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있다.

이 연구사업은 최근 정착이민자들의 다수를 포함하고있는 아세아계 고포들의 미국내 취업상태가 업종, 수입, 노동 및 취업조건등 여러점에서 불리하고 저조한 실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포착하여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각적으로 분석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연구대상으로는 동아시아 및 인도차이나 8개국 출신고포 약 700명인데 이중 한국 출신고포 150명이 포함되고있다.

이 연구사업은 1978년 5월부터 시작하여 1년간에 걸쳐 완성될예정으로서, 현재 각국 고포사회 봉사기관을 통하여 표본추출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조사대상자들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이 진행되고있다. 자료수집이 끝나는 대로 여러가지 사회과학적인 이론과 방법을 토대로 워싱턴대학의 컴퓨터를 사용 내용분석을 한다음 전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연구내용중 흥미있는 부분은 아세아인들의 잠재취업능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 취업상태에 현격한 차질이 생기고있는 현상이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워싱턴주정부의 대 아세아인소수민족 고용정책을 크게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흥미를 끄는 내용은 같은 아세아인들 가운데에도 취업능력 과 패턴에 있어서 출신국가별로 차이와 특성이 다분히 나타날 것으로 이는 각 출신국의 이민역사, 교육, 문화, 업종개발상태, 국민성등과 다분히 관련성이 있을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 연구사업은 전반적으로 DPAA가 주관하고있으나 전체적인 연구진행 및 분석에는 현재 워싱턴대학 사회학과와 정치학과에서 각각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실동씨와 박건홍씨가 맡고있다. 이 연구는 워싱턴주 뿐만 아니라 미국전역을 통하여 다양하게 구성되고있는 아세아인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취업실태분석연구의 최초의 예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있으며, 한국인이 연구대상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있다는 점에서도 한인고포사회의 현황파악에 상당한 공헌이 될것으로 기대되고있다. 한인증 면담자도 선정된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고있다.

이 문제에 관한연락은 :

Kun Hong Park
DPAA, 322-0203

시 감상

"바람부는 날"

오늘 타타 바람이 박성용
저렇게 쓸새 없이 슬때고만 있음은
오늘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희고만 있음은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풀잎에
나무 가지에
들길에 마을에
가을날 잎들이 많강게 쓸리듯이
나는 오늘 그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희고만 있음은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아 지금 바람이
저렇게 못견디게 슬때고만 있음은
오늘은 또 내가
내게 없는 모든 것을 깨닫고 있음은
바람도 나와 함께 안다는 말일까

그대 눈으로 모운속

그대 눈엔 꿈이 속삭이네
푸른 베일을 쓴 생명의 벌이
연하게 날으는 사랑의 날개
본수같이 덮어 이 몸을 적시고
이 혼을 흔들어 미치게 하네

외로운 그늘을 비치는 태양인 양
그대는 내 서러운 밤의 층계에
오직 하나인 나의 별
오직 하나인 나의 생명

멀어서 못 따르는 나의 노래는
그대 계신 곳 감 깊이 없으라
그리워 타는 이내 진심을
미풍에 실어 그 계신 곳 보내주
하늘의 웃음이 어린 그 손결한 등자 속
사랑의 천국이 날 기다리고

나는 가리타 이 눈물 씻어 줄
그대의 마음 속 눈으로 가리타
그 눈은 영원히 접어 있어
내 혼 반식의 생에서 구원하리
나는 살리타 그대 맘에 숨어서

바람 구름 어둠 없는 밝은 하늘 아택
그대의 눈등자 속에서 생을 노래하리타
그대 눈은 내 희망의 창
흐림도 번뇌도 없는 행복의 침묵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Frank Hyun Choong Kim,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offered.

글을 쓰는 마음

이 기 반

나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쓰고 싶은 시를 쓰고 싶을 때 쓰는 일입니다. 하루 내 바쁘게 뛰고 달리던 몸을 나의 안식처에 차분히 앉히고 조용히 명상 하면서 벌이 총총히 깔린 밤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하고 쓴다는 것은 행복합니다. 시를 쓰려고 마음 다스리는 시간만은 가을의 호수처럼 맑고 잔잔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본만 아니라 나를 내세우고 싶은 심정이나, 스스로 비굴해지거나, 허영과 잡념으로 가득 차지도 않는 내 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마음 그대로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유연하고 비없이 맑은 심경은 좀 과장한다면 신선의 경지라고나 할까, 아니면 구도자적 자세라고나 해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옛적부터 많은 시인들이 우리나라의 자연 속에 살면서 가꾸던 시심도 이런 것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라도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글을 쓰고 싶지만 한밤의 고요한 시간처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글을 읽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써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일급 권의 시집을 냈고 한권의 수필집을 냈지만 거개가 이 한밤에 생각하고 쓰여진 작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입니다. 물론 학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 속 깊은 정서의 샘에서 깊이 올린 한편의 시거나 자기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써서 독자에게 선보이는 수필 같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조심스럽고 때론 부끄러우면서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교환 되면서 인간적으로 친숙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글 쓰는 일도 적지않게 뜻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실한 마음과 자세로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시는 내 생명의 본신이요 내 정신외화신입니다. 욕심으로는 내 생명을 굶게 색칠 하듯이 아름답게 다듬어 내 뜻이 한자 한 구절이라도 정성을 담아 쓰고 싶습니다. 글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공명의 파도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 사이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정신과 정신이 하나로 되고 혼과 혼이 밀착 될 수 있는 것 이라면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철학자 (니체)는 "피로 쓴 글 만이 사람의 혼을 움직인다!" 라고

말했는데 이말은 "생명을 넘어 생명으로 글이 전하고자 대가의 생명 고혈을 향약으로 처리하여 보전한것"이라고 (밀턴)이 양서를 정의한 말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한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일생을 살고 싸우고 고민해야 하는 고귀한 생활이란 쉽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본만 아니라 진실하고도 절실한 인생의 체험을 훌륭하게 표현하는 일은 더구나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피로 쓴 글처럼 훌륭한 글 한편도 못 써보았고 한편의 글을 쓰기 위해 일생을 살아보지도 않았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목숨이 다 할 때 까지 글을 쓰고 또 글을 읽으렵니다. 때때로 나의 존경하는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을때 마다 격려해 주시는 그 뜻에 감사하면서 답장하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쓴 글은 언제 보아도 불안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내가 겪어야 하는 시련인가 싶어서 자위하며 정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쓰고 싶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 글을 억지로 쓰지 않으면 안될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없이 나를 채찍질 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온갖 힘을 다하여 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길이나 되는 듯이 말입니다. 나는 시인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니다. 내 마음 속의 깊은 데서 떠오르는 가지 가지의 정서를 마음대로 표현 할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본디 남달리 소박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정의 소유자라고 자부하는 나에게는 솔직한 심정을 제대로 표현 할수 있는 기쁨이란 여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도 많읍니다만 제 뜻을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 할수 있다면 무엇 보다도 귀중한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아부하고 굴종하기를 유난히 싫어하는 나로서는 떳떳하게 글을 쓰면서 살아온 것이 자랑스럽읍니다. 앞으로도 시인된 긍지를 목숨처럼 지니고 끝내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렵니다. 누가 무어라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쓰면서 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천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헨리장 여행사
Henry Chang Travel Service

국제 국내항공권 취급
이민 상담
재정보증서 작성

Tel. (206) 523-7057

9002 12th Ave. N.E.
Seattle Wash. 98115

THE KOREA TIMES

보다 빠른
故国 소식

보다 알찬
生活 情報

가장 높은
廣告 효과

한국일보

每週 二回 시애틀·타코마 뉴스

* 한국일보 讀者에게는
『週刊 한국』을 每週
보내드립니다.

구독신청·광고접수

☎ 시애틀 525-9222
타코마 588-0333

7320 20th AVE. N.E. SEATTLE WA. 98115

한국일보 支局長 趙 炳 雨

한인회비납부자

- 34. 김 재 호 \$ 30
- 35. 구 범 회 \$ 15
- 36. 엄 대 섭 \$ 10
- 37. 오 준 곽 \$ 20
- 38. 박 재 인 \$ 20

온전면허안내책자기부금

- 서 석 현 \$ 15
- 백 세 현 \$ 20

일반기부금

- 대한민국총영사관 \$150
- 구 범 회 \$ 15
- 오 준 곽 \$ 40
- 김 길 랑 \$ 35
- 김 재 호 \$ 35
- 한 만 섭 \$ 35
- 황 수 철 \$ 20
- 김 창 섭 \$ 35

NEW! 새로 개업한 NEW!
동양식품점은
항상 값이 싸서 좋습니다.
오셔서 직접 보시는 것이
현명하지요.
노스계이트 동쪽 제일교회입구
전화: 365-5540



워싱턴 부동산회사



510 TERMINAL SALES BLDG.
SEATTLE, WASH. 98101

☎ 822-4120 시애틀

100TH & KLINE STS. SW
TACOMA, WASH. 98499

☎ 581-1331 타코마

안병용
838-2010/927-7778

박영민
838-4339

황선규
537-1834

데이비드 크로우
564-6254

남서지역



북부지역



상업·투자



타코마



부동산·투자·상담·재산관리·보험·무료 공증

이번 7월호 한인회보는 박명준께서
읽어 보셨습니다.

부 고 환 영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에서 발간하는
본 한인회보는 매월 약 1,500부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한인 교포 어
려분께서 보내 주시는 정성스런 원고는 성
의껏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월 15일 까지 한인회 사서함으로 우
송하여 주시거나 직접 한인회 사무실로 갖
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교포 사회에 유의
한 갖가지 경험담이나 생활 정보, 논설,
문예 작품등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 한인회보에 광고를 내실분은
광고 내용과 원하시는 디자인을 보내 주시
면 됩니다. 개인 문제나 영업용 광고등 다
양하게 전달이 되오니 교포 여러분의 많은
신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 : 624-7604

624-7607 감사합니다.

편 집 후 기

교포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
까? 점차 일기가 더워져서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는 일이 있지만 얼마전 시애틀 대
배부버의 친선 야유회에는 많은 교포 여러분
께서 참석하여 주시어 성황을 이루었고 또한
이번 8월 4 일에는 대한 민국의 씩씩한 해
군 용사들이 이곳 시애틀을 방문하여 교포
여러분께 정예의 우리 해군 모습을 보여드
릴 것입니다. 점차 발전하는 우리 이민생활
의 밝은 면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그들로
부터는 정겨운 고국의 소식을 들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시애틀 한인교포
사회의 발전중 획기적인 것이라 할수 있겠
읍니다. 또한 하시라도 여러분의 부고를 환
영하고 잇아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
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신 영 운

알 리

Seafair 당국의 초청으로 이번 우리나라 해군 순항 본대 (함정 2척)가 시애틀항을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행사를 가질 예정이오니 모쪼록 많이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 기간 : 78. 8.4(금) - 8.7 (월) 간
2. 함정명 : 충북호 (DD 975) 및 경남호 (APD -827)
3. 정박부두 : 충북호는 Pier 56 및 경남호는 Pier 69
4. 일 정 :

8.4 (금) 오전 9:00 시애틀 입항(입항 도중 West Seattle
북단 Duwamish Head 에서 예포 21발 발사,
부두 정박시 장운걸 총영사외 외장대 사열,
꽃다발 증정, 미해군 군악대 환영 연주 등이
있을 예정)
오후 2:00-5:00 일반에게 함정 공개
오후 8:30 4th & Madison St. 에서 Seattle Center
까지 Torchlight시가 행진(해군 사관생도,
밴드, 외장대 및 한인회 등 200명 참가),
참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6:30까지 4th & Pike st.
에 집합 요망.

8.5 (토) 오전 10:00-12:00 함정 일반에게 공개
오후 7:30 -4:30 " "
오후 2:00 -2:30 해군 외장대 시범 (장소: Waterfront Park)
" 2:30 -3:30 해군 군악대 연주 (장소: ")

8.6(일) 오전 11:00-오후 3:00 시애틀. 타코마 지역 교민과의 오찬
및 야유회
장 소 : Lincoln Park
내 용 : 해군 약 450명 참석, 해군
군악대 연주 및 외장대 시범, 참석시는
1가족당 약 5명분의 여분 음식 준비 요망

오후 2:00-5:00 일반에게 함정 공개

8.7(월) 오전 10:00 시애틀 항 출발, 환송 행사 개치

1978년도 Seafair 미인 선발 안내

Seafair Torchlight Parade 에 우리 해군이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우리 한인 교포중에서 한복입은 Queen 을 참가시키기로 하였으니
Queen 선발에 많은 응모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 발 방 법

1. 응모 자격 : 17세 이상 한국 미혼 여성으로서 미국의 서북부지방
거류자 (ID 를 제시할 것)
2. 응모 일시 및 방법 : 응모자는 1978년 7월 31일 (목) 19시까지
한인 학교에 올 것
(주소 : Brookhaven Baptist Church
3525 95th N.E. Seattle, WA.
전화번호 : 525 - 5646)
3. 심사위원 : 이창희 선생, 서두수 선생, 박 암 선생, 박송자 여사
허원 여사, 김형진 위원장
4. 심사 방법 : 7월 29일 당일에 Queen 7명을 선발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차선자 약간명을 선발할 수 있음.

해군 함정 환영 준비 위원회

김철준
김철준

NEW YORK
LIFE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367-1534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 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